

# 근대적 인쇄매체를 통한 계몽의 담론화와 呼名の 서술전략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

-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소재 계몽논설의 서술전략을 중심으로 -

서형범\*\*

|| 차례 ||

- I. 서론
- II. 계몽주체의 구축을 위한 호명 전략
- III. 계몽주체 확장의 논리구조
- IV. 계몽담론의 폐쇄적 순환구조의 의미
- V. 결론

## 【국문초록】

개화기 학술지에 수록된 계몽담론 저작물의 언술구조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계몽담론 생산주체인 개화기 지식인 자신을 지식인 공동체로 확장하고 이를 다시 계몽의 대상으로 상정된 대중으로 확장시키는 주체확장의 서술전략을 채택한 점이다. 개화기 지식인들이 마주한 새로운 지식담론들을 스스로 체화하고 이를 대중들과 공유함으로써 미증유의 공동체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요한 실천주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교육홍국론을 앞세운 지식중심의 계몽담론은 그 생산과 소비 과정이 생산주체와 소비주체 및 실천주체를 구별지을 수 없는 통합적이고 단일한 담론주체를 전제해야 하는 것이었다. 개화기 학술지의 저작물들은 이러한 지식중심 계몽담론이 지닌 단일주체담론을 언술구조 차원에서 반영하고 있는바, 개화기 계몽적 저작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재귀적 언술

\* 본 연구는 경기대학교의 신진연구인력 연구지원사업(과제번호 2012-00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구조로 귀결될 운명을 지닌 것이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기층 민중들을 실천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개화기 계몽담론이 지니고 있었던 재귀적 언술구조는 필연적으로 자기만족적이며 폐쇄적인 순환구조로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층민중의 폭발적이고 실질적인 계몽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비록 외부 조건의 급변이 빚어낸 국권상실의 상황으로 주체적 계몽기획이 실패로 이른 것임은 분명하나 이에는 지식중심적 계몽담론이 지닌 자족적 언술구조의 필연적 실패에서도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개화기, 학술지, 계몽담론, 언술구조, 자기호명, 서술전략, 재귀적 언술구조, 畿湖興學會月報

## I. 서론

본고는 미증유의 역사적 격변기에 임한 지식인들이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지식담론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앞에 두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던 저작물들을 개화기 지식인들의 새로운 매체환경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하고 이를 근대적 개인적 글쓰기 양식의 탄생과 변화 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평가하는 연구를 지향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개화기 학술담론이 집중되었던 학회지를 대상으로 개화기 지식인들의 자기이해와 지식공동체 수립을 위한 지적 여정이 글쓰기를 통해 구체화되었던 양상들에 초점을 맞춰 글쓰기 전략의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전통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경륜을 지식공동체와 공유하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공공의 글쓰기로서의 학술지 글쓰기라는 새로운 글쓰기 공간이 지닌 특징들이 어떻게 구체적 저작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핍으로써 개화기 지식인들이 근대 매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해의 정도와 방향이 계몽담론의 글쓰기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근대의 개인적 글쓰기를 기반으로 한 근대문학제도의 형성과 공공의 가치를 앞에 둔 지식집단의 형성을 통한 근대적 지식인층의 형성 사이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내용 못지않게 저작물의 형식, 곧 산문양식으로서의 저작물이 지니는 유형들을 분류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기존의 연구들은 ① 개화기 지식인들의 저작물들이 담고 있는 문명개화론의 내용과 학술담론의 체계를 제시하는 연구 방향<sup>3)</sup>, ② 산문양

1) 본고는 개화기 지식인들의 지적 실천의 소중한 성과인 학술지 소재 계몽저작들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서사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개화기 계몽담론을 살폈던 저간의 학계의 논의의 폭을 넓히고 지식담론의 구조화를 통해 계몽담론의 통합적 구조를 해명하는 장기적 연구의 방향을 가능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화기 지식담론의 특징적 양상을 개화기 학술지 소재 저작물들이 언술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살피는 데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2) 이 논의는 학계에서 매우 논쟁적으로 진행 중인 과제이나,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개괄하여 제시하는 정도로 논의를 한정하였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 논의 범위가 넓고 대상이 확장적인 까닭에 한 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무기에 적합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구자혁, 『大韓自強會와 教育論』, 『사회과교육』1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81.12.  
 김순일, 『開化期の 住意識에 관한 研究-1876-1910年間 見聞錄 新聞 學會誌의 住宅論을 中心으로』, 『건축』26권 3호, 대한건축학회, 1982.06.

노대환, 『1905-1910년 文明論의 展開와 새로운 文明觀 摸索』, 『유교사상연구』39, 한국유교학회, 2010.03.

민병덕, 『韓國 開化期の 出版觀에 관한 研究』, 『출판학연구』34, 한국출판학회, 1992.  
 부길만, 『『大韓每日申報』의 雜誌觀에 대한 考察』, 『출판잡지연구』7권 1호, 출판문화학회, 1990.

박양조, 『舊韓末 西北學會에 관한 一考察』, 『한국여성교양학회지』3, 한국여성교양학회, 1996.12.

서은영, 『근대 계몽기 ‘국민’담론과 외교론의 전개-『태극학보』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09.

식 일반의 유형분류를 인용하여 저작물을 분류하는 문학 연구 시각에서의 접근<sup>4)</sup>, ③ 문명개화론을 설파하기 위해 저작되었다는 저작 동기를 고려하여 지식인 담론의 구성 조건을 살피는 연구 방향<sup>5)</sup>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

유정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의 형성과 계기들-학술지 『태극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40,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12.

전미경, 「개화기 계몽담론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단상-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권 3호 통권 57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06.

정선태, 「근대계몽기 ‘국민’담론과 ‘문명국가’의 상상-『태극학보』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28,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채상우, 「지리학적 상상력과 위생학의 문법 그리고 전구경쟁의 내면화-개화기 학회지의 세계인식방법과 문학론, 『한국문학연구』2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12.

함동주,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일본관과 ‘문명론’, 『동양정치사상사』2권 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3.09.

황민호, 「韓國近代 雜誌에 나타난 法律關聯 資料의 경향, 『정신문화연구』27권 1호 통권 9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06.

홍선표, 「근대적 일상과 풍속의 징조-한국 개화기 인쇄술과 신문물 이미지, 『미술사논단』21, 한국미술연구소, 2005.12.

4) 권보드래, 「신문, 1883-1945, 『오늘의 문예비평』47, 오늘의 문예비평, 2002.12.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학회지와 신문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20, 한국근대문학회, 2009.10.

손정수,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10, 상허학회, 2003.02.

정선태, 「계몽의 담론-개화기 문화적 서사 담론의 정치적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 시론, 『외국문학』47, 열음사, 1996.05.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문학적 성격 연구, 『한국학보』23권 4호, 일지사, 1997.

장철문, 「근대계몽기 시가의 매체텍스트 구축 양상-『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의 채록, 투고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22, 한국근대문학회, 2010.10.

5) 김형목, 「畿湖興學會 京畿道 支會 現況과 性格, 『중앙사론』12-1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1999.12.

———, 「畿湖興學會 忠南地方 支會 活動과 性格, 『중앙사론』1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1.12.

배항섭, 「한말 일제하 李鍾浩의 교육활동과 항일운동, 『한국인물사연구』9, 한국인물사연구회, 2008.03.

오대륙, 「일제강점기 常山 金度演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04.

다. 물론 이들 외에도 개화기 저작물들 가운데 정론적 성격을 지닌 저작들이 어떤 매체에 실려 있는가에 주목하여 신문과 잡지 각각의 매체 특성과 관련시켜 살피는 연구<sup>6)</sup> 또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명화, 「韓末 崔光玉의 生涯와 救國運動의 性格」, 『한국인물사연구』5, 한국인물사연구회, 2006.03.

정영희, 「畿湖興學會 忠南支會의 活動에 관한 研究」, 『역사와실학』19, 역사실학회, 2001.01.

정옥재, 「1910-1920年代 經學院의 人的 構成과 役割-司成과 講士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권 1호 통권 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03.

조형래, 「학회(學會), 유토피아의 미니어처-근대계몽기의 지역학회 및 유학생 단체를 통해서 본 지역성과 고향 의식」, 『한국문학연구』3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12.

최재목, 「金源極을 통해서 본 1910년대 陽明學 이해의 특징」, 『양명학』23, 한국양명학회, 2009.08.

최혜경, 「大韓協會와 藕泉 趙琬九」, 『동학연구』10, 한국동학학회, 2006.03.

6) 구장률, 「근대초기 지식편제와 교양으로서의 소설-최남선과 『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12.

권보드래, 「근대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1905년-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13, 민족문학사학회, 2007.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한국어문학연구』5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02.

김종진,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담론의 변모양상」, 『한국어문학연구』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02.

김진균, 「20세기 초반의 계몽담론과 한문」, 『정신문화연구』31권 4호 통권 11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12.

김현주, 「『제국신문』에 나타난 혼인제도와 근대적 파트너십」, 『한국근대문학연구』23, 한국근대문학학회, 2011.04.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06.

문경연, 「近代 ‘趣味’ 개념의 형성과 專有 樣相 고찰-1900년대 媒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35권 3호 통권 13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09.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학회지와 신문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20, 한국근대문학학회, 2009.10.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 역사』12, 한국여성사학

먼저 ①에 속하는 연구들은 해당 연구 저작들이 자리하는 연구 영역의 관심사에 따라 실질적인 분류 혹은 해석 방향이 달라지는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개화기 조선 지식인들의 학술 수준을 가늠하여 각각의 저작자들의 사상적 거점과 담론의 구성 방식을 살피는 데 소요되는 기초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개별 저작물들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조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각각의 저작물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이 동시대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지식의 원천이라 할 서구의 학술 담론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 자리하는가를 판단하는 정도에서 저작물을 활용하고 있어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근대적 개인적 글쓰기 양식과 저작자의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분석과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②에 속하는 연구들은 개별 저작물들의 서사적 구조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 비록 개별 저작들이 ‘이야기’를 지니는 서사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사론의 시각에서 볼 때 개별 저작물들은 모두 저작자들이 동시대의 독서대중들을 향해 ‘발언’하는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까닭에 가능한 연구 방향으로 본 연구가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성과들을 적지 않게 보여 주고 있다. 실제 이 유형의 연구들은 개화기 문학에 대한 연구의 기본을 이루는 까닭에 아래 언급된 목록 이외에 훨씬 많은 연구들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연구 성과들은 여전히 개별 저작물들 각각의 ‘서사체로서의 위상’에 주목하여 그것들의 분류를 시도하여 새로운 글쓰기 양식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멈춰 있다. 개화기 글쓰기 환경 자체를 심화시켜 살피는 데로 나가는 대신 이 유형의

---

회, 2010.06.

전은경, 「1910년대 지식인 잡지와 ‘여성’-『학지광』과 『청춘』을 중심으로」,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09.

연구들은 개별 저작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를 향한다. 이 연구 가운데 일부는 ④ 유형과 연계되어 좀 더 발전적인 매체론의 활용을 예비하기도 한다.

③ 유형은 문명개화론으로 총칭되는 개화기 저작물들 각각의 상호관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개화기 지식담론의 총체적인 지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들이다. 이 유형의 연구들이 깊은 수준에서 담론분석을 행하고 이를 학문 전체의 구조를 전제하고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식지형도를 살피는 총체적 시각을 견지했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매체환경에 대한 개별 저작자들의 이해 정도를 살필 수 있는 분석적인 자료 또한 이 유형의 연구들이 도달한 지점에서 적지 않게 얻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연구들 역시 지식담론의 지형도를 그려 개화기 지식인들의 성찰적 여정을 살피는 데 활용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이른바 ‘계몽담론’의 생산자들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결과 그들이 행한 실질적 발언의 결과물인 개화기 저작물들 자체의 성취를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④ 유형의 연구들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연구 주제인 매체인식과 관련된 소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준다. 잡지와 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매체 자체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저작물들의 구성과 구조의 차이 및 각각의 개별 저작물들의 성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이 유형의 연구들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연구들 역시 근대적 인쇄매체가 일상 삶에 투입해 들어 와 빛어내는 삶의 내밀한 변화 양상을 문학 연구자의 시각에서, 곧 개인의 삶의 내밀한 흔들림이 어떻게 그의 일상을 변화시켜가고 그것이 근대적 글쓰기와 어

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전개되지는 않는다. 신문과 잡지로 대표되는 근대적 인쇄문화가 얼마나 널리 보급되었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통계자료로서의 가치 이상의 미학적 해석을 향하지는 않고 있다 하겠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진행되는 본 연구는 우선 개화기 지식인들의 저작물들을 일별하여 매체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진술을 직접 담고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긴 저작들을 추출하고 이를 개인의 매체인식으로 전환시켜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화기 저작물들을 근대적 의미의 ‘문학’ 범주로 한정하는 시선에서 비껴 서서 ‘글쓰기’라는 좀 더 포괄적인 범주로 옮겨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2장에서 1인칭을 통해 지칭된 언술행위주체 또는 글쓰기 주체가 저작물의 논리구조를 따라 집단으로 확장되고 계몽적 실천의 주체로 호명되는 잠재독자를 포함하는 확장된 주체로 규정되는 데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3장에서 계몽의 실질적 주체를 담론을 통해 확장적으로 제시하는 개화기 지식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민족공동체를 단일주체로 환원하는 사유구조가 어떤 특징과 한계를 지니는가를 살피는 데로 이어지며,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개화기 계몽담론 생산주체인 지식인집단의 계몽적 실천의 한계를 개화기 계몽저작의 논리구조가 지닌 재귀적 언술구조의 폐쇄성을 분석적으로 살펴 평가하게 될 것이다.

## Ⅱ. 계몽주체 구축을 위한 호명 전략

개화기 계몽담론의 언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인칭 주어로 쓰이는 我나 吾의 쓰임이 많다는 점이다. 물론 글쓰기에 있어 글쓰기 행위 주체를 가리키기 위해, 곧 글을 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나’를 말하는

것이 새롭거나 이상하다 볼 수는 없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기에 반드시 근대적 글쓰기라 부를 수 있는 저작물에서만 근대적 글쓰기 주체로서의 개별성을 전제한 ‘나’를 언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개화기 학술지의 저작물의 경우 이러한 글쓰기 태도는 대개 글쓰기 행위 주체와 표현된 서사의 행위주체가 동일한 경우, 곧 ‘자신이 자신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등장한다.

그런데 개화기 계몽담론에 바탕을 둔 저작물의 경우 ‘나’는 실제 육체를 지닌 글쓰기 행위 주체를 가리키는 경우보다 저작물이 제시하고 있는 계몽담론의 실천 주체, 곧 문명개화를 이끌어 갈 주체로서 추상화된 누군가를 가리키는 데 ‘나’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쓰기 행위 주체’와 ‘서사행위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에 등장하는 1인칭이라는 문법적 지표와는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는 것도 실질적 진술주체와 실제 행위주체가 단순히 일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주체가 ‘실천’이라는 차후적 서사영역에서 행위주체의 확장을 예비하기 위한 서사전략으로 등장한다는 점, 곧 ‘나’가 ‘나’를 지나 ‘우리’로 확장되는 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직선적인 사고의 흐름을 구성하는 계몽저작의 특수한 논법을 정밀하게 살펴 계몽저작의 성취와 한계를 균형있게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화기 지식인들의 계몽담론은 ‘실천’을 앞에 둔 근대기획의 일환으로 구축된 행동촉구형 구조를 지니는바, 당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성찰과 실천의 주체로 동일하게 전제되어야 정합성을 지닐 수 있는 언술체계였다. 이런 이유로 개화기 지식인들의 계몽저작물은, 더구나 학술지 소재 계몽저작물은 저작자 자신을 포함한 개화기 지식인 전체가 주체로 상정됨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인 모두를 행위의 주체로 가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sup>7)</sup>

이 논의를 정밀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개화기 학술지 전체를 대상

으로 저작물에서 언표된 ‘나’를 하나하나 추출하여 그 쓰임을 비교하는 실증 작업이 앞서야 할 것이나, 본고는 먼저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만을 대상으로 ‘나’라는 1인칭 주어의 쓰임과 효과를 살피고 그것이 해당 저작물이 제시하고 있는 文明開化와 興學의 방책에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 또는 심화시키는가를 살핍으로써 개화기 계몽담론의 특징적인 언술구조의 일단을 살피는 것으로 해당 논의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한 기נ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언술주체가 1인칭 ‘나’를 언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언술주체가 언술행위, 여기서는 글쓰기 행위를 실제 담당하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려 할 경우가 있다. 언술행위의 동기나 지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 ‘나’는 글쓰기 행위 주체인 필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멈춘다. 둘째, 언술주체가 저작물 내에서 자신과 타자를 구별짓기 위하여, 곧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내어 이후 전개되는 진술이 지닌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을 확인하는 해석과정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나’가 텍스트 내의 행위주체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성찰과 실천 등의 구체적인 정보와 방향이 제시된 텍스트의 경우 해당 논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기대되거나 요청받는 존재 전체의 결단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하여

---

7) 이와 관련하여 이정옥은 “당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두적인 지식인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당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동질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계몽기획에 부합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다(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대중서사연구』13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07.06. p.153.)

집단주체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sup>8)</sup>

실질적으로 텍스트가 호명한 독자, 곧 계몽저작의 잠재독자(implied reader)<sup>9)</sup>가 ‘나’의 호명을 통해 주체와 사고체계를 공유하도록 촉구받는 구조를 지닌 것이 계몽저작의 기본 논리구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몽저작의 글쓰기 주체와 그가 생산한 저작물의 잠재독자가 동일화되는 것이 계몽저작의 특징적 소비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몽저작의 생산자들은 자신들과 독자들을 구분하는 단계에서 계몽담론을 시작하나 담론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호명된 잠재독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지향과 결단의 계기를 얻기를 기대하며 계몽저작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의도한다. 그 결과 계몽저작의 잠재독자는 호명됨과 동시에 저작물의 생산주체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받으며 계몽저작은 ‘내용’ 수준에서 뿐 아니라 ‘형식’ 또는 ‘구조’ 층위에서 저작물의 생산자와 잠재독자가 동일화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계몽저작의 호명구조는 본질적으로 ‘자기호명’ 또는 ‘재귀호명’일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독자를 향한 호명이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명이건 실질적으로 그것은 1인칭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김철규는 1인칭 대명사 사용을 통한 독자의 텍스트 개입 기대 언술의 기능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라는 대명사의 사용이 독자들을 하여금 텍스트에 언급된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사실들 앞에 저자와 한 부류로 묶으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사실들이 저자에게 미친 영향을 독자들 역시 공유하게 됨을 논증하였다(『독자를 텍스트에 개입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된 영어 인칭대명사』, 『비교문화연구』10권1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6, pp.3-15.).

9) 수용미학 일반이 전제된 ‘독자’ 개념이 실제 가능성을 높게 전제된 문화적 개념이라면 이저에 의해 논리적으로 제시된 잠재독자 개념은 실제 독자를 환기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진술과 논리구조를 통해 추수적으로 추론되는 ‘가정된 독자’를 가리킨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물론 실제하는 구체적 저작물 하나하나의 잠재독자들이 공유하는 속성과 각각의 저작물이 자리한 담론지형도는 개념으로서의 독자가 실제하는 독자로서의 육체성을 획득하는 요소로 기능하며 개화기 지식공동체를 구성한 지식인 및 독서대중으로 실제 독자를 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자기호명’은 계몽담론이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물론 그 구체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을 대하는 태도를 전변할 것을 촉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단계를 지나면 자신이 자리한 개별적 상황조건을 추상화하여 계몽담론 일반이 제시한 ‘조선의 현실’을 구조 차원에서 승인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텍스트가 호명한 잠재독자는 더 이상 대상화되고 타자로 독립된 개별 주체가 아니라 계몽저작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주체와의 동일화를 요구받고 승인하도록 자리를 옮겨 가게 된다. 독자 자신이 계몽의 행위주체로 변모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계몽담론의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것을 받아 들임과 다르지 않게 된다.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학술지의 경우는 계몽저작의 생산자와 잠재독자가 실질적으로도 동일시되는 것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회의 발기 및 학술지 발간의 취지를 興學의 차원에서 의미화하려는 여러 저작들에서 저작물의 생산주체가 자신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여 호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자/독자의 자리에 있는 저작물의 수용자들을 주체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鄭永澤의 『本會精神』에는 ‘吾請論其精神호리라’, ‘本會精神은 是國家的이오 非畿湖의이라’, ‘吾等 이 當此之時호야 捨教育二字호고 其將何歸리오’와 같은 1인칭 호명이 등장한다. ‘吾’, ‘本會’, ‘吾等’은 ‘나’, ‘우리 학회’, ‘우리들’로 각각 풀어지는데, 이 글이 畿湖興學會 발기 취지 및 학회지 발간을 ‘興學’으로 연결짓는 집단의 논리를 해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직접 언술 이외에도 그러한 興學의 주체로 자신을 확장하고 집단을 단일주체로 묶어 사고하는 사유체계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申案浩는 글쓰기 행위 주체로서의 ‘나’와 계몽담론 실천의 주체로서의 집단으로 변모된 ‘나’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① 我가 二歲부터 步를 學호얏건만 今에 瀛車와 競步호랏흔즉 脚이 〇호야도 不能홀지며 我가 五歲부터 騰躍을 學호얏건만 今에 飛船을 追及호야흔즉 翼이 生호야도 不能홀지며 我가 祿負行商을 學호얏건만 今에 此로써 世界市場에 出現호랏흔즉 井魚의 溟渤妄想이라 不可호며 我가 椎擊石磨를 學호얏건만 今에 차로써 美術大家와 比肩호랏흔즉 携僂의 千斤强擔이라 不可호며 我가 詩三百을 學호얏건만 今에 此로써 外交舞臺에 立호야 俾斯麥背와 抗호은 不能홀지며 我가 二十一史를 學호얏건만 今에 此로써 世界大勢를 觀察호야 時局問題를 解決호은 不能홀지니

② 二十世紀 今日 此時에 生호 我輩가 進호야 外國人을 對호미 韓國人이라 稱호기 無愧호며 退호야 內地 同胞를 對호미 畿湖人이라 稱호기 無愧호야 恢恢廣大호 天地에 我的 面目과 我的 手足으로 我가 自立自行호며 自由 自主호 造願을 抱호고 於是乎 我 興學會를 組織호니라<sup>10)11)</sup>

①의 ‘나’는 신채호 자신의 유년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용된 1인칭이나 ②의 ‘나’는 단재 개인이 아니라 단재와 뜻을 같이하는 畿湖興學會 발기 주체들을 가리킨다. 물론 ②의 ‘나’는 그 바로 ‘我輩’와 ‘我’로

10) 본고는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하여 발간한 『開化期學術誌』에 수록된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살려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誤植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주석으로 오심을 바로잡는다. 가독성을 위하여 저작물의 제목 및 원문의 띄어쓰기는 현행 맞춤법에 준하여 인용자가 부가한다. 행의 구분 역시 세로쓰기 조판으로 된 원자료에서 단락을 구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을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쓰기로 인용문을 제시하는 본고에서 인위적으로 행을 구분하여 단락을 나누지는 않았다. 단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자료의 단락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중간을 생략하고 자료를 발췌 인용할 경우 각각의 인용에 대하여 ①, ② 등 연번을 부여한다.

11) 申宗浩, 『畿湖興學會는 何由로起호얏는가』,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인용문 ① 첫행의 ‘瀛車’는 ‘氣車’ 또는 ‘汽車’의 誤植으로 판단됨. 이러한 표기들의 경우 동시대 외래 문물에 대한 한자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추후 정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됨.

다시 나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①의 ‘나’는 유년기 및 청년기 학업 과정까지 연결되어 육체를 지닌 실재인 단재를 직접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나 ②의 ‘나’는 단재를 포함한 지식인집단으로 그 지칭 대상이 확대되어 사용된다. ②에서 ‘我輩’라는 1인칭 복수 주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재는 ①의 ‘나’의 사적 경험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불과한 사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청년 지식인 집단 일반의 경험과 마주 세울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장된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리는 적어도 단재에게는 아무런 논리적 허점이나 비약을 지니지 않은 것이 됨은 당연하다. 그러하기에 ②의 ‘我’는 ‘我輩’와 굳이 구별하여 사용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사적 수확 경험과 그를 통해 획득한 지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새로운 지적 실천을 향한 행보를 선택한 단재 자신의 여정을 독자 대중과 공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결단과 실천을 행하도록 촉구하려는 목적을 지닌 이 글의 의도는 이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논법은 卞榮晩의 『大呼教育』에서도 발견된다.

③ 教育----- 教育-----

余 | 教育을 大呼호노라 余 | 計育을 大呼호노라

④ 嗚呼 噫嘻라 余 | 獨立的 名譽를 尙保호야 羅馬의 古聲을 猶響호는 伊太利에 對호야 欽羨호며 國家的 主義를 奮揮호야 世界上 大勢를 左右호는 獨逸에 對호야 讚歎호며 島國의 生活에 是起호야 勁強的 民性을 發揮호는 日本에 對호야 差愧호되 方寸이 散亂에 夢魂이 頻勞터니<sup>12)</sup>

12) 卞榮晩의 『大呼教育』,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인용문 ③의 ‘計育’은 한자의 의미를 푼다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썩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教育’의 誤植으로 봄이 타당함.

③의 ‘나’는 변영만 자신으로 한정되거나 畿湖興學會 발기인 집단으로 확장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④의 ‘나’는 그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서구와 일본의 문명부강을 부러워하는 저작물의 시선은 변영만이나 畿湖興學會 발기인 집단을 포함한 지식인 일반의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변영만이나 畿湖興學會 발기인 집단 이외의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이미 서구 및 일본의 문명개화와 그에 이어지는 국가발전은 상당히 알려진 기지의 정보였기에 ④의 ‘나’는 텍스트가 호명한 잠재독자를 포함하는 것이 된다. ③의 ‘余’는 이 글의 저작자 변영만 자신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교육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은 일차적으로 저작자 변영만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④의 ‘余’는 변영만 자신이 서구와 일본의 근대적 기획과 국가적 실천에 의한 국부성장에 대한 경이로운 시선을 지니게 된 지적 체험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동시대 지식인 집단 가운데 학회를 꾸려 교육흥국론을 펼치고 있는 畿湖興學會 구성원 일반의 처절한 자기이해와 반성을 담고 있다는 점, 이들 구성원들이 확대되어 ③으로 다시 이어짐으로써 개화공간에서 교육을 부르짖는 선각적 지적 실천의 집단주체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앞의 단재의 논법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 글의 목적이 畿湖興學會 자신들의 목적을 단순히 외부에 드러내고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인들의 실천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지닌다는 점이 또한 고려된다면 ③이 ④로 확장되어 다시 ③으로 순환하면서 확장되는 확장적 순환구조를 지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1인칭 주체의 확장적 연술구조는 ‘나’를 ‘우리’의 원형이자 출발점으로 삼는 전통 지식인담론의 익숙한 구조를 환기시킨다. 개화기 지식인들은 이러한 확장적 연술구조를 향해 제기될 수 있을 논리적 비약이나 주체 확장이 비논리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음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 Ⅲ. 계몽주체 확장의 논리구조

전통 지식인들에게 있어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善’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을 확장시키는 사고구조를 구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었던 논리는 修身齊家の 논리였다. 개화기 지식인들 역시 자신들의 학문적 성과를 지식인 집단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동시대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외부로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과제였다. 타인과 구별되는 주체의 독자성 혹은 개별성을 확인하여 자신의 학문연구의 기반을 마련함은 단순히 자신의 지적 성숙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했다. 개화기에 등장했던 많은 수의 학술단체와 이들이 경쟁적으로 발간하였던 학술지는 이러한 주체의 성찰과 확장의 논리가 실제화된 결과물이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구조 속에서 개화기 학술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저작들은 가족의 은유를 기반으로 계몽담론을 구축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담론을 생산해 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은유는 근본적으로 가족질서가 지니고 있는 종적 위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이 대등한 지위를 지니고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경쟁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공공선으로 승인받지 못한 가치는 재고의 여지 없이 배제되며 집단의 가치지향을 구체화하는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행동준거와 규칙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사유와 행위는 선악의 이분법에 의해 배제되고 은폐되어야 했다. 달리 말하자면 근대의 개인이 지녀 마땅한 자율성과 그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색의 과정이 보여주는 일탈의 가능성은 전혀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한 규정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이 빚어내는 원심력을 억제하는 것

이 당연시되는 일종의 가족독재를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는 것에 일점 의심을 지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의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 가족공동체의 은유 또는 확장이 ‘나’의 확장 혹은 확대인가 아니면 ‘나’와의 동일시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지식담론을 나누는 대상인 또다른 독서주체를 자신과 구별되는 독립된 주체로 상정하고 공유와 토론을 통한 공동이해로 향하는 주체적 실천역량을 지닌 독립된 타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작자와 동일시되어버리는 데 대한 아무런 망설임을 지니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몽 실천의 집단주체로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요청받아 마땅한 주체로 상정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개화기 지식인집단을 근대적 주체로서 승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지닌 집단임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개화기의 문명개화론이 계몽담론으로 승인받고 담론 생산주체들의 자기갱신의 노력이 온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들 전통 지식인들이 보여주었던 가족공동체의 은유를 드러내는 것을 저작물들의 내부에서 확인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몽의 실천 영역에서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전제하였는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논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이들이 보여주는 자기확장의 논리가 저작물에 작동하는 양상을 살피는 데 할애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개화기 학술지 소재 계몽저작물 특유의 확장적 언술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개화기 계몽담론의 성취와 한계에 대한 균형잡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李鍾浩는 『各學會의 必要性 及 本會의 特別 責任』에서 畿湖興學會

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學會의名稱이 地方을 隨호야 各異호면 形式的은 各立호는 故로 分派의 腦裡에 自然 歡迎될지니 自會에 對호는 誠心은 他人에 不讓호지오 各其 讓步 치 아니호는 熱誠으로 湖南, 嶠南과 關東의 人士는 畿湖에 不讓步호며 畿湖의 人士는 西北에 不讓步호는 固然호는 理致니 如斯히 互相間에 不讓步호는 結果에는 其 學會의 目的이 進步호지라 某 學會던지 其 目的은 新鮮호는 學問으로 知識을 開發호야 國家와 個人의 關係를 知得케 호이니 各 學會가 進步호면 其 福利는 國家에 歸호지라 此를 엇지 孤獨生活호는 時에 公議를 夢想外에 置호고 萬船所爲가 一 私利 中에 不出호던바에 譬言호리오<sup>13)</sup>

위 인용은 지방마다 학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전시대의 분파의식에 따른 과당의 난립과 그로 인한 혼란이 재연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전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이다. 각 지방에 근거를 둔 지역학회들은 각 학회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순기능이 주목되어야 할 것인바, 학회의 목적은 모두 새로운 학문으로 구성원들의 지식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는 일치하므로 지역학회의 발흥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진술은 전시대의 과당과 그에 따른 학술집단의 무분별한 경쟁이 초래했던 정치적 학문적 혼란과 부정적 유산을 ‘孤獨生活호는 時에 公議를 夢想外에 置호고 萬船所爲가 一 私利 中에 不出호던’이라 규정함으로써 당대의 학술단체의 흥기를 옹호하는 데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이 인용 바로 앞에서 그는 ‘國中에 他 學會가 林立麻列호지라도 畿湖의 學會가 惟一이라’ 진술하였다. 물론 이 진술만으로 그가 畿湖興學會의 독자성을 유일성으로 치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13) 李鍾浩, 「各 學會의 必要性 及 本會의 特別 責任」,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데 이 글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등장한다.

今日 東西文明의 風潮가 侵入함의 各地方이 學會를 冊立하며 我 畿湖學  
會도 同時 冊立함의 畿湖 人士는 다 昔日에 人의 規範호던 地位에 處호  
故로 今에 是 會를 惟一이라 호느니 我 一般 會員의 負擔호 責任이 實로  
他 會員보다 大호도다

이 인용에서 주목할 표현은 ‘畿湖 人士는 다 昔日에 人의 規範호던 地位에 處호 故로’이다. ‘畿湖’라 불리는 지역이 왕성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표나게 드러내는 진술이며, 그것이 ‘구범’으로 언급됨으로써 다른 학술단체들과의 차별적 지위를 드러낸다. 더구나 그는 ‘余는 生長호 故로 西北學會의 一員이오 住址호 故로 畿湖學會의 一員이나 實地를 履行하며 本旨를 貫徹호는 會는 余의 自身上에 當호 榮華로 思量호노니’라 말함으로써 자신이 畿湖興學會를 특별하게 보고 있음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적 영역의 정서를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진술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진술전략을 택한다. 이는 畿湖興學會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서술전략을 매우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도와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술이 다른 학회들을 폄하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중심 학술단체와 구별되는 畿湖興學會의 특수성은 그 자체 규범적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는 논법은 가장 정선되고 가장 규범적이며 가장 완성도 높은 학술단체로서의 자기규정을 부러 피하지는 않음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진술이라 하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북지역 지식인들에 의해 발간된 『西友』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등장한다.

關西는 吾東文明之發動地라 檀氏는 尙矣어니와 自夫箕聖之東來로 詩書禮樂이 實權興於此호야 啓東方文明之運호고 海西는 又崔文憲李文成諸賢之所薰陶者也라 自開鎖交通以來로 兩西之士 | 先覺於世界之大勢호야 越重洋以游學于歐美日本諸國호야 吸收新空氣호며 輸入新智識호야 以爲後進倡故로 近日學校之苑興과 教育之發展이 爲諸道冠호야 言開明則必以西道로 首屈一指호니 (중략) 徒高談於性命之奧호여 尙執拗於蒼古之習호야 膠守舊見에 排斥新學호야 不知時局形勢之如何호고 舉一省而盡在桃源春夢호니 (중략) 願西友는 毋以西自割호고 益加勉勵호야 會以及於全國이면 其功이 豈下於華頓頓之倡十三州走而獨立者아<sup>14)</sup>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서북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전위성과 선진성을 앞에 내세우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으며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주요 거점으로 확정짓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의 서북지역에 대한 정치적 구별짓기에 저항하는 서북지역의 독자적 세력화가 강력히 작동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학술담론에도 그러한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 주목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진술이라 하겠다.

근대화를 지향하는 계몽담론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흥국론을 앞세웠던 개화기 지식인 집단 가운데 畿湖興學會는 자신들의 계몽담론의 실천과 교육흥국의 기획을 선도하는 전위집단으로서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전통 사회 지식인집단이 공공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지식담론의 집단실체화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李鍾浩의 이 글에는 畿湖人事의 대표성이 지식인집단 일반의 선도적 역할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적어도 畿湖興學會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학회가 다른 지역 기반 학회들보다 늦게 출범

14) 嵩陽山人 張志淵, 『祝辭』, 『西友』 창간호.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욱 세련된 체제와 앞선 지식으로 무장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집단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을 포괄한 지식인집단 내부에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경계지음으로써 이들은 자연스럽게 개화기 기층민중 일반과의 차별성을 아무런 반성 없이 전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사적 차원의 장치로 그 의미를 한정할 수도 있는 언술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남들과는 다르다는 경계짓기는 테두리 안에 자리한 이들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의 목표를 향한 실천 동력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에 개화기 계몽담론의 언술구조를 살핌에 있어 마땅히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畿湖興學會를 비롯한 학술단체의 개별성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학술단체로 통합됨을 언급한 李春世의 「客의 問」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吾等の 舌椎가 尙存 訶니 可以攪學界之夢이오 筆鋒이 方銳 訶니 可以斬學界之魔라 圻湖로 作人人之名號 訶며 畿湖로 爲家家之宅號 訶고 興學으로 視若衣食而生活 訶며 興學으로 視若舟車而行動 訶면 不越幾多年 訶야 畿湖兩省之內에 村村學會와 家家學校를 確然可期오 如是之後엔 與全國二千萬同胞로 合成一團大韓興學會가 不難 訶 事이라 高揭太極國旗 訶고 齊奮俱進 訶야 使我祖國으로 雄飛世界之中 訶리니 於此快償無餘矣라 子其知之乎 아<sup>15)</sup>

李春世는 ‘圻湖’ 또는 ‘畿湖’를 각기 ‘名號’와 ‘宅號’로 삼고 이를 ‘興學’을 기반으로 한 ‘生活’과 ‘行動’으로 구체화하면 ‘村’과 ‘家’가 ‘全國’의 ‘同胞’로 확장되어 갈 것임을 확신한다. 이는 ‘太極旗’라는 국가 상징과 ‘祖國’

15) 李春世, 「客의 問」,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이러는 집단주체로 귀결되는바, 이 과정에서 李世春은 ‘畿湖’를 내면화하는 지식인집단과 그들의 인도를 따라 계몽의 실천주체가 되는 대중(독서대중과 일반대중이 분화되지 않은 대중)이 구별되지 않음을 전제하는 논법을 의심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학술단체를 앞에 두고 전개된 ‘學會’ 중심의 興學論이 정서적 집단주체인 ‘祖國’으로 연계되는 논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興學을 위한 성찰과 행동의 주체로 스스로를 내면화하기를 추구하는 이 저작의 잠재독자들이 분명하게 한정되지 않고 추상적 집단으로 호명되기만 한다는 점, 호명된 이들이 지식인집단 자신으로 귀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님에도 경계를 나눔이 없이 일반 대중과 동일시하여 興學론을 낭만화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저작에서 문답의 주체로 상징된 ‘客’과 ‘나’의 구분은 학회 중심의 興學論을 전제로 펼쳐지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예시하는 일종의 敘事化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담화의 한 주체인 ‘客’ 역시 교육흥국론의 방향에 동의하고 자신의 성찰과 작성에 기반한 실천의 방향을 찾고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식인집단 내부의 또 다른 ‘나’일 수 있음에도, 이 저작은 ‘客’의 자리를 정밀하게 살피는 대신 일방적으로 지식인집단인 학회 중심의 흥국론을 재론할 뿐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구별 및 구체적인 교육체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낭만화된 교육흥국론을 반복할 뿐이다.

물론 鄭永澤의 『本會精神』은 畿湖興學會의 차별성보다 지식인집단 일반의 통일적 행보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특히 그는 ‘非畿湖’와 ‘非政治’를 표나게 내세움으로써 畿湖興學會가 여타의 학술단체와 구별됨을 경계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서북지역 지식인집단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西北學會의 『西北學會月報』를 비롯한 다수의 학술지들이 지역이나 유학생 집단으로 경계지어진 학술공동체 역할론을 앞세웠던

것을 반성적으로 통합하려는 畿湖興學會 나름의 존재의의를 표방하는 것이리는 짐 못지 않게, 앞서 살폈던 단재의 『畿湖興學會는何由로起하였는가』나 李鍾浩의 위 저작물을 예비하는 일종의 教育興國論과 학회 역할론의 사전포석으로서 읽힐 여지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곧 위 두 저작물이 표나게 내세운 畿湖興學會의 역할론을 위한 일종의 통합적 논리 기반 마련의 성격을 지닌 문건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공동체의 주체들이 지녔던 낭만적 계몽기획의 단면은 鄭永澤의 『教育의 目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낭만적 성격의 教育興國論이 개화기 계몽담론이 실질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놓여 마땅한 구체적 실천의 방책으로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교육의 가치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의 제도 및 방향에 대한 고민이 발전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教育의 目的은 人의 體, 智, 德 三者를 完全 發達케 ㅎ야 能이 獨立의 人物되게 ㅎ에 在ㅎ다ㅎ이 或 可ㅎ듯ㅎ도다

但 獨立의 人物은 孤立의 人物이 아님을 注意ㅎ이 可ㅎ느니 蓋 孤立의 人物은 甚히 國家에 貽害ㅎ는 者이나 獨立의 人物은 決코 不然ㅎ바라<sup>16)</sup>

鄭永澤은 동시대 계몽담론과 관련된 교육흥국론이 겨냥하는 교육의 목적이 ‘實利主義’, ‘重魂主義’, ‘政治主義’, ‘自然主義’, ‘優美主義’, ‘道德主義’ 등으로 불릴 수 있는 편향이 적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위와 같이 당대 교육의 목적이 통합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이 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그러나 그 논의의 소략함이 지닌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정영택

16) 鄭永澤의 『教育의 目的』,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의 논의는 원칙의 확인에서 한걸음도 더 나간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머물 뿐이다. 교육의 목적을 각각의 편향을 경계하며 정향한 결과가 ‘體, 智, 德 三者를 完全 發達케 ㅎ야 能이 獨立的 人物되게 ㅎ음’이라는 원론에 멈추는 것은 학회를 설립하고 학회가 교육흥국론을 펼치며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나서는 동시대의 흐름에 비춰 보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단계에 머문 진술임이 분명하다. 물론 학술지가 본격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기에는 썩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과 잠재독자들을 향한 촉구형 논설의 성격을 표나게 드러내려는 저술의도가 앞선 결과라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계몽담론의 실천주체로서의 지식인집단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자기갱신의 당위성을 저작물에 담아야 하는 요구를 전제한다면 이러한 진술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물론 李容植의 『興學의 方針』에는 국가 책임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제도를 제시하여 교육흥국론이 구체적인 국가정책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 진술 역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제안에 그칠 뿐 그것의 효용과 체계에 대한 심화된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다.

有萬全一策 ㅎ니 其義務教育乎 ㄱ저 所謂義務教育者는 國中子弟를 國中 父兄이 隨其所居區域 ㅎ야 各其擔任教育 ㅎ이니 京鄉無論 ㅎ고 或千家 或五百家 或二三百家로 區域을 定 ㅎ야 一學校를 各其 冊立 ㅎ야 永遠히 維持케 ㅎ이 現今 天下 各國에 通行之例也라 我韓도 此를 依倣 ㅎ면 學界에 亦一幸福云爾라<sup>17)</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차원에 머문 지식중심 교육흥

17) 李容植의 『興學의 方針』,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국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식인집단은 자기 자신을 기층민중과 구별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자리시키게 된다. 자신들의 능동적이고 체계화된 성찰은 추상적이고 낭만화된 교육흥국론을 펼치는 것 자체로 충분히 구체적인 실천에 임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는 실질적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교육흥국론의 실천주체로서의 지식인집단과 교육의 실제 참여 주체가 되어야 마땅한 대중들에 대한 심화된 분석과 구체적 실천방안의 안출을 향해 마땅한 논의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닐지 추정해 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는 또한 자신들을 대중과 동일시하는 데 대한 반성의 결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순환구조로 계몽담론이 반복되는 한계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 IV. 계몽담론의 폐쇄적 순환구조의 의미

개화기 지식인들이 학술지를 통해 근대적 지식담론을 소개하고 새로운 지식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아 구성한 학술공동체인 개화기 학회는 현재의 학술단체와는 분명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화기의 학술단체인 학회는 ‘學’의 의미를 ‘배우다’와 ‘가르치다’의 중의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학회의 학교 설립이 강조되고 학회가 학교를 통해 대중과 근대적 지식을 매개로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담당층을 길러 내는 교육제도의 수립을 다음 단계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興學’으로 표상되는 학술지의 계몽담론은 일차적으로 ‘學’을 ‘새로운 지식을 배우다’와 ‘후속 세대에게 가르치다’로 사용하며 이를 다시 ‘일반 대중을 가르치다’와 ‘공동체의 ‘民度’를 높이다’로 확장한다. 계몽의 주체가 교육의 주체로 환원되었다가 다시 실천의 주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개화기

학술지의 ‘興學’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畿湖興學會가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함을 주장한 몇 편의 논저들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아울러 2호 이후의 학회 활동 및 학술 관련 동정을 소개하는 단순 보도 문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교육의 실천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들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 개화기 학술단체였던 학회는 지식담론을 매개로 사회교육운동을 주창한 대외활동지향의 결사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활동이 지속성과 그에 따르는 성과를 기대하고는 있으나 실질적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데는 외부 환경의 변화, 곧 식민질서로의 편입과 그에 수반되는 주체적 학술 역량의 약화 및 문화제도로부터의 배제 등 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이들의 교육론이 지닌 추상성과 낭만성,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식인 집단이 재귀적 담론구조 속에 편입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계몽담론의 구조적 한계 또한 주목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개화기 지식인들의 지식담론 체계는 지식의 수용과 주체의 갱신 및 실천이라는 세 단계를 실천의 영역에서 확장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삼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주체 역량 혹은 조건의 차이에 대해 개화기 지식인들은 너무도 일방적이고 단선적으로 자신들과 대중을 동일시하고 말았다. 개화기 비판적 계몽서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에서 간파하고 있는 지식집단과 인민대중의 유리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천착이 수행됨이 없이 일방적이고 계도적인 대상화의 태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저작에서 소경은 표면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상을 살피지 못하고 과거의 인습에 갇혀 있는 조선 민중 일반을 은유하고

있는 듯 보인다. 소경이 團體 또는 單體를 결성하여 함께 변화를 꾀하고 더 나은 삶을 꾸려 가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앓은뱅이가 소경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비판하는 대목은 조선 민중들이 지식인들의 문명개화 실천론에 호응하지 않고 일차원적인 삶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소경은 조선 민중 일반의 근시안적이고 현실지향적인 소극적 태도를 은유하는 동시에 조선 지배층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대책의 은유이기도 하다. 기존에 개화기 단형 서사체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시각이 구세대 지배계층과 기층 민중을 구분하여 지배층의 무능과 기층 민중들의 신산스런 삶을 대비시키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은 구세대 지배계층과 기층 민중들이 개혁적 전망을 지닌 지식인들과 대척점에 놓이는 구세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분명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바로 이런 새로운 시각을 앞에 둘 때, 畿湖興學會를 구성하였던 기호지식인들이 보여 준 한계, 곧 스스로의 책임과 그에 바탕을 둔 지식실천에 적극 나서고자 호소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향해 되돌아오는 반성의 시선과 겹쳐질 뿐 실질적인 인민대중의 실천의 방편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못하는 근본 한계일 수밖에 없었다.

鄭永澤이 “據上所陳하면 本會之精神이 不外乎教育的國家精神也 | 嗟我同胞여 其 亟觀感而奮起哉어다”<sup>18)</sup>라고 『畿湖興學會月報』의 잠재독자를 호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기호지식인집단을 향한 다짐에 다름아니었다 할 것이다. ‘嗟我同胞여’라는 다분히 감성적인 호명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식공동체를 향한 다짐이자 자기만족의 탄성에 불과한 것이

18) 鄭永澤, 「本會精神」,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아니겠는가. 李鼎煥이 “大地는 圓轉活物故로 前日 文化之自西而東者 | 不得不 由東而西 ㅎ리니 此實太極圈之處中無外 ㅎ야 結成碩果之象이라 吾所確信而不疑也 ㅎ노라”<sup>19)</sup>라고 조선의 미래를 낙관한 것이나, 申案浩가 “恢恢廣大 ㅎ은 天地에 我的 面目과 我的 手足으로 我가 自立自行 ㅎ며 自由自主 ㅎ을 造願을 抱 ㅎ고 於是乎 我 興學會를 組織 ㅎ니라”라고 하여 畿湖興學會의 존재 당위성을 역설한 것 모두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확신하고자하는 욕망의 발현으로 봄이 온당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특정인 개개인의 한계로 귀속시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본고는 『畿湖興學會月報』 소재 계몽저작물에서 발견되는 자기충족적 시선의 한계가 개화기 지식인들의 공통된 한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구나 학회라는 제한된 담론공동체에서는 외부의 반성적 시선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소경과 앓은뱅이 문답」이 보여주는 지식인과 기층민중 사이의 간극이 빚어내는 계몽담론의 실천이 직면한 근본적 한계상황에 대한 인식이 썩 깊이를 더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畿湖興學會가 지역 기반 학술공동체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던 지식인 중심의 계몽담론의 추상성을 반성할 수 있는 담론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낭만적이고 자족적인 재귀적 계몽담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서울을 에

19) 李鼎煥, 「本會의 前途希望」, 『畿湖興學會月報』 창간호.

위싼 기호지방의 지정학적 특징이 지식담론의 종합과 질적 변화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추상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당위론으로 귀결됨으로써 ‘나’로부터 확장되어 공동체와 세계 일반으로 넓어지는 전통적 지식담론을 충실히 반복하고 변주하는 데 그쳤을 뿐, 근대가 모든 사유와 담론과 실천의 중심으로 삼는 개인에게는 시선이 드리워지지 못한 한계를 다시 반복할 뿐이었다.

물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운동을 구체화하고 학회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행위의 일 주체인 교사양성에 앞장서는 등 실천 영역에서의 성과가 폄훼됨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들을 비롯한 민족주의 계몽담론이 폭압적 식민통치를 짧게 종식시키는 데 적극 참여한 새로운 지식청년들과 민중계몽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마땅히 주목받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지역 지식인 공동체의 주체역량을 기반에 둔 개화기 학술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하였음에도 서울과 기호지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힘입어 가장 큰 영향력과 실천을 보여주었던 畿湖興學會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창간호의 계몽담론과 교육론이 지닌 담화구조의 특징과 재귀적 담론구조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개화기에 민족주체를 앞세운 수많은 지식인들의 계몽담론 일반이 지닌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 가지면서도 『畿湖興學會月報』의 저작물들은 교육론의 구체화와 실천의 구체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층민중이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 계몽 지식담론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음도 확인하였다.

물론 이것이 개화기 지식인 중심의 계몽기획이 온전히 뜻을 이루지 못한 유일 원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본고가 살핀 개화기 학술지 소재 계몽저작물의 한계는 지식인담론의 본질적 한계와 마주 세울

수 있을 성질의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가 주목한 것은 가장 선진적이며 전위를 자임했던 지식인 중심의 계몽저작들에 내재한 낭만적 세계인식과 주체와 타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개화기 계몽담론의 추상성과 실천의 한계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畿湖興學會月報』, 『開化期學術誌』, 亞細亞文化社, 1978.

『西北學會月報』, 『開化期學術誌』, 亞細亞文化社, 1978.

『西友』, 『開化期學術誌』, 亞細亞文化社, 1978.

### 2. 논문 및 단행본

구자혁, 「大韓自強會와 教育論」, 『사회과교육』1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81, pp.52-65.

구장률, 「근대초기 지식편제와 교양으로서의 소설-최남선과 『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pp.81-98.

권보드래, 「신문, 1883-1945」, 『오늘의 문예비평』47, 오늘의 문예비평, 2002, pp.172-184.

\_\_\_\_\_,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한국어문학연구』5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pp.5-43.

김경희, 「근대인쇄문화의 도입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10, 서지학회, 1994.06, pp.99-134.

김병철, 「文化移入에 있어서의 開化期 知識人の 精神姿勢에 관한 研究-번역문학을 中心으로」, 『출판학연구』32, 한국출판학회, 1990, pp.16-46.

김순일, 「開化期の 住意識에 관한 研究-1876-1910年間 見聞錄 新聞 學會誌의 住宅論을 中心으로」, 『건축』26권 3호, 대한건축학회, 1982, pp.27-30.

김종진, 「개화기 이후 독본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담론의 변모양상」, 『한국어문학연구』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pp.52-78.

김진균, 「20세기 초반의 계몽담론과 한문」, 『정신문화연구』31권 4호 통권 11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pp.275-299.

김철규, 「독자를 텍스트에 개입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된 영어 인칭대명사」, 『비교문화연구』10권1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6, pp.1-20.

김현주, 「『제국신문』에 나타난 혼인제도와 근대적 파트너십」, 『한국근대문학연구』23, 한국근대문학학회, 2011, pp.123-160.

\_\_\_\_\_,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

- 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한국문학연구』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pp.221-261.
- 김형목, 『畿湖興學會 京畿道 支會 現況과 性格』, 『중앙사론』12-13,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1999, pp.59-84.
- 노대환, 『1905-1910년 文明論의 展開와 새로운 文明觀 摸索』, 『유교사상연구』39, 한국유교학회, 2010, pp.347-386.
- 문경연, 『近代 ‘趣味’ 개념의 형성과 專有 樣相 고찰-1900년대 媒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35권 3호 통권 135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pp.343-369.
-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학회지와 신문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20, 한국근대문학회, 2009, pp.183-210.
- 민병덕, 『韓國 開化期의 出版觀에 관한 研究』, 『출판학연구』34, 한국출판학회, 1992, pp.69-100.
- 박양조, 『舊韓末 西北學會에 관한 一考察』, 『한국여성교양학회지』3, 한국여성교양학회, 1996, pp.77-89.
- 배향섭, 『한말 일제하 李鍾誥의 교육활동과 항일운동』, 『한국인물사연구』9, 한국인물사연구회, 2008, pp.249-280.
- 부길만, 『『大韓每日申報』의 雜誌觀에 대한 考察』, 『출판잡지연구』7권 1호, 출판문화학회, 1999, pp.55-71.
- 서은영, 『근대 계몽기 ‘국민’ 담론과 외교론의 전개-『태극학보』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2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pp.189-207.
-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 역사』12, 한국여성사학회, 2010, pp.189-230.
- 손정수,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10, 상허학회, 2003, pp.35-59.
- 양현규, 『開化期의 讀書階層』, 『출판학』22, 한국출판학회, 1974, pp.66-96.
- 오대륙, 『일제강점기 常山 金度演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pp.159-195.
- 유정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의 형성과 계기들-학술지 『태극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40,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159-183.
- 이명화, 『韓末 崔光玉의 生涯와 救國運動의 性格』, 『한국인물사연구』5, 한국인물사연구회, 2006, pp.243-324.
-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대중서사연구』13권 1호, 대중

- 서사학회, 2007.06, pp.151-185.
- 이종국, 『개화기 출판 활동의 한 징험-회동서관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49, 한국출판학회, 2005.12, pp.215-252.
- 장철문, 『근대계몽기 시가의 매체텍스트 구축 양상-『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의 채록, 투고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22, 한국근대문학회, 2010, pp.355-387.
- 전미경, 『개화기 계몽담론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단상-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권 3호 통권 57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 pp.87-99.
- 전은경, 『1910년대 지식인 잡지와 ‘여성’-『학지광』과 『청춘』을 중심으로』,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pp.499-530.
- 정선태, 『계몽의 담론-개화기 문화적 서사 담론의 정치적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 시론』, 『외국문학』47, 열음사, 1996, pp.202-225.
- \_\_\_\_\_, 『개화기 신문 논설의 문학적 성격 연구』, 『한국학보』23권 4호, 일지사, 1997, pp.4078-4102.
- \_\_\_\_\_, 『근대계몽기 ‘국민’담론과 ‘문명국가’의 상상-『태극학보』를 중심으로』, 『어문학』28,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pp.63-78.
- 정영희, 『畿湖興學會 忠南支會의 活動에 관한 研究』, 『역사와실학』19, 역사실학회, 2001, pp.497-520.
- 정옥재, 『1910-1920年代 經學院의 人的 構成과 役割-司成과 講士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권 1호 통권 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pp.221-248.
- 정진석, 『한성순보의 잡지 논쟁』, 『출판학연구』39, 한국출판학회, 1997, pp.429-431.
- 조형래, 『학회(學會), 유토피아의 미니어처-근대계몽기의 지역학회 및 유학생 단체를 통해서 본 지역성과 고향 의식』, 『한국문학연구』3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pp.71-109.
- 채상우, 『지리학적 상상력과 위생학의 문법 그리고 전구경쟁의 내면화-개화기 학회지의 세계인식방법과 문학론』, 『한국문학연구』2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 pp.331-350.
- 최재목, 『金源極을 통해서 본 1910년대 陽明學 이해의 특징』, 『양명학』23, 한국양명학회, 2009, pp.149-186.
- 최혜경, 『大韓協會와 藕泉 趙琬九』, 『동학연구』10, 한국동학학회, 2006, pp.137-157.
- 하동호, 『開化期小說의 發行所, 印刷所, 印刷人攷』, 『출판학』12, 한국출판학회, 1972,

pp.5-15.

함동주,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일본관과 ‘문명론’』, 『동양정치사상사』2권 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3, pp.147-162.

홍선표, 『근대적 일상과 풍속의 징조-한국 개화기 인쇄술과 신문물 이미지』, 『미술사논단』21, 한국미술연구소, 2005, pp.253-279.

황민호, 『韓國近代 雜誌에 나타난 法律關聯 資料의 경향』, 『정신문화연구』27권 1호 통권 95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pp.193-221.

**Abstract**

A Research fo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nlightenment  
discourse and the structure of statement of academic journal  
in Korean Enlightenment Period

- Centring on the 『畿湖興學會月報』(Ki-ho Heunghak-hoi wol-bo,  
The Monthly Review of Society for Education in Suburb) -

Seo, Hyoung-Bo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y of the structure of statement of academic journal in Korean Enlightenment Period especially centering on the published media for intellectuals who had the literacy for the Korean alphabet system and the Chinese character system. They were also the traditional educated person and the intellectual for the Korean modernization. The major feature of structure of statement in the writing of their Enlightenment discourse is the reflexive structure of statement. They used the first person single subject, i.e. 我, 余, 吾(in korean means 'I') and the plural 吾等(in korean means 'We'). At first, they expressed the writer himself of their articles to the letter by the first person subject. But secondly they indirectly expressed the public collectiveness of the practice subject of enlightenment project of socio-education progress for Korean modernization. Even if their intention were proper alternative for Korean modernization by making strenuous effort, and they expected that general Korean people would symphasize their enlightenment discourse and take part in the project of socio-education progress, during the Japanese and European expansionism policy(an effort to divine and rule the Ch'ing and Asian countries), their intention were destined to the their own self-contentment. As a result, the articles strategy of the structure of statement of academic journal in Korean Enlightenment Period could not convince people why they learn modern knowledge, i.e. technology,

geology, philosophy. and how they make the best use of new acquaintance with that.

Key Word : Korean Enlightenment Period, academic journal, self-calling, narrative strategy, reflexive structure of statement

서형범

소속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iyou92@chol.com, hbseo@kyonggi.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